

황제인

1986년 출생 (KR/USA)
janehwangjane@gmail.com
janehwang.com

학력

2023 베를린 예술대학교 아트 인 컨텍스트과 석사 졸업
2010 매사추세츠 컬리지 오브 아트 앤 디자인 회화와 학사 졸업

개인전

2023 <이 선생에 관하여>, 공간 형, 서울
2022 <둥글고 볼록하게 맺힌 것>, 라움 온 디맨드-알테문체, 베를린, 독일 & 웹 프로젝트

주요 그룹전 및 스크리닝

2026 2인전, 자를란트 쿤스틀러하우스, 자르브뤼켄, 독일 *예정
2026 2인전, HELMUT, 라이프치히, 독일 *예정
2025 <DISSIDENT PATHS>, nGbK, 베를린, 독일
2024 <아워 타임> (2인전), 폴크스뷔네 슈테른슈펜, 베를린, 독일
2024 제15회 부산평화영화제, 부산
2024 웨이프쉬프팅 필름페스티벌, 베를린, 독일
2024 제18회 리버 필름페스티벌, 파도바, 이탈리아
2023 <쿤스트 임 콘텍스트> 석사학위청구전, CCA 베를린, 베를린, 독일
2023 <멸종위기 언어의 맥락으로써의 예술>,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학술원, 베를린, 독일
2022 <룬트강 2022>, Room 252, 베를린 예술대학교, 베를린, 독일
2021 <전시후도록>, WESS, 서울
2020 오픈스튜디오, SÍM-아이슬란드 시각예술협회, 레이캬비크, 아이슬란드
2020 </DOCA_demo2020/>, 데이즈 오브 컨템포러리 아트, 모스크바, 러시아
2020 <SEEN BY #14 IMPRINTED MATTERS>, 베를린 사진미술관, 베를린, 독일
2019 <Pub.lications>, 아틀리에하우스 잘츠암트, 린츠, 오스트리아
2019 <쿤스트 임 콘텍스트 40주년 기념전>, nGbK, 베를린, 독일

토크, 퍼포먼스 & 워크숍

2026 무빙 이미지 리메인즈 컨퍼런스, 프랑크푸르트 괴테 대학교,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독일 *예정
2024 <하이브리드 바다-정체성과 다양성의 언어학적 탐구>, 디자인&컴퓨테이션 스튜디오, 베를린, 독일
2023 <예술과 역사와 사회와 정치가 만나다>, 스튜디오 반전, 서울
2022 <랑에 나흐트 데어 뷰로크라티>, 쿤스트할레빌로우 스튜디오스, 베를린, 독일
2020 <당신의 하드 드라이브에 무엇이 있나요?>, Ortstermin 20, 베를린, 독일
2019 <나들과 너들의 섬>, 프로젝트 스페이스 옥타곤, 베를린, 독일
2019 <테이크 플레이스>, 인스티튜트 퓨어 알레스 뢰글리헤, 베를린, 독일
2019 <쿤스트 슈패티>, 몬타주할레, 베를린, 독일
2016 <굿 파티>, 동삼주택, 서울

레지던시

2020 SIM-아이슬란드 시각예술협회 아티스트 레지던시, 레이카비크, 아이슬란드

수상 및 선정

2024 제19회 소칼 필름 어워드 국제 영화상, 캘리포니아, 미국

2023 서울예술지원 다원예술분야, 서울문화재단

2022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 서울예술지원 RE:SEARCH, 서울문화재단

2020 프로젝트 기금지원, Interflugs, 베를린, 독일

출판

2025 『WLT 썬데이 ZINE』, 우먼즈랩탑, 참여작가

2023 석사논문 『이 선생에 관하여-세대 간 대화와 사후의 대화에 관한 에세이 필름』, 베를린 예술대학교

2022 『플랫폼 빌더스』, Nine Birds Press, 참여작가

2021 『베를린에서 온 편지 (A Letter from Berlin)』, 아티스트 북, 250 에디션

2020 『운창단 (CloudChoir for our Beloved)』, 카세트 테이프, 20분, 50 에디션

2019 『나들과 너들의 섬 (island of is and yous)』, 아티스트 북, 32페이지, 100 에디션

기획 및 제작 경력

2024 조감독, 아티스트 필름 <Dismemberment>, 베를린, 독일

2024 세트 디자이너, 독립 프로덕션 <Be Something>, 베를린, 독일

2019 큐레토리얼 매니지먼트, <Sustainable Data 3.0>, NON Berlin, 베를린, 독일

2018 큐레토리얼 매니지먼트, <Facing North Korea>, NON Berlin, 베를린, 독일

2013-2014 버추얼 세트 디자이너,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서울

2012-2013 큐레이터, 아트컴퍼니 H, 서울

2011-2012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표갤러리, 서울

작가 소개

황제인(b.1986)은 베를린을 기반으로 한 멀티미디어 작가이다. 매사추세츠 컬리지 오브 아트 앤 디자인에서 회화를 전공했고, 베를린 예술대학 아트 인 컨텍스트 과정에서 기억과 미디어의 학제간의 연구를 주제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작가는 아카이브와 기록물의 불완전함을 공동체 서사의 구축을 위한 토대로 여기며, 공백과 부재로부터 서사의 윤곽선을 그려나간다. 리서치를 기반으로 분절된 기억의 파편을 수집하며, 타자의 경험에서 생성된 기억의 유물이 나와 우리의 감각으로 체화되는 방법론을 탐구한다. 개인전 《이 선생에 관하여》(공간 형, 2023)을 열었으며, nGbK 베를린 (2025), 폴크스뷔네 슈테른슈펜 (2024), CCA 베를린 (2023), 베를린 사진미술관 (2020)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작가 노트 (발췌)

기억의 파편은 마치 파도에 밀려온 오래된 부표처럼 우리 앞에 불쑥 나타나곤 한다. 나는 그렇게 시간의 흐름에서 떠밀려 온 기억의 조각들이 현재의 맥락에 새로이 정착하고, 뿌리내리는 여정을 관찰한다. 이는 공식기록에서 탈락한 번두리 기억이거나, 지워져야 했던 억압된 공동체의 기억이며, 때때로 시대적 침묵의 산물이다. 이러한 서사의 잔해는 불완전한 형태로 생성되고 확산되며, 기록되어 저장된다. 어떤 이야기는 아카이브로만 존재하는데,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유기적 매개체로서의 세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어떤 이야기는 한 번도 발화되지 못한 채 입 속에 머금었다 삼켜지고, 자연스럽게 망각의 운명을 따른다. 어떤 이야기는 기억되고 살아남기 위해 수정되고 각색되며, 설화나 전설, 소문의 형태로 전해진다. 이처럼 나의 작업은 국가 기록에서부터 공동체 단위의 아카이브, 그리고 개개인의 경험으로 분화되는 지점에서 나타나는 내러티브의 역동성에 주목한다.

나의 작업은 비디오와 사운드 설치, 텍스트, 퍼포먼스 등 리서치 기반의 매체를 통해 기억의 다양한 층위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권력 중심의 서사에서 말해지지 않은 공백과 상실을 수집하고, 이를 이미지와 글, 소리의 조각들로 재가공하고 재배열하면서 현재성을 부여한다. 여성, 소수 민족, 억압된 공동체의 구술사적 접근방식을 토대로, 비언어적 발화(몸짓, 시선, 떨림)를 관찰하고, 이로부터 서사의 윤곽선을 그려나간다. 제한된 기억을 물질화하는 방법론은 공백과 부재를 만들어내며, 필수적으로 허구와 상상의 개입을 초래한다. 뼈대가 되는 사실 기반의 내러티브 사이에 은밀한 개인적 상상력이 매개체가 되어 이야기를 구조화하는 방식이다. 일그러진 시공간, 초월적인 존재와의 조우, 현세를 떠나지 못하고 기억을 안고 맴도는 유령 등 초현실적인 존재가 내포하는 무한한 가능성은, 의례, 주술, 미신 등의 공동체 경험과 함께 기억의 영속화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조정자로 등장한다.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 중에는 이미 죽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별도 있다고 한다. 별이 살아있을 때 내뿜은 빛이 우리 눈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어쩌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반짝이는 별이 이미 죽어 산산히 흩어져, 그 잔해가 새로운 별을 생성하는 중일지도 모른다. 나는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보여지기까지 숙명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어떤 기억, 사실, 현상은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과거로부터 꾸준히 달려오고 있다. 어느 날,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끈질긴 여행을 마친 후, 우리의 시야에 비로소 들어오는 것들을 보게 된다. 기억의 잔해가 또 다른 덩어리를 만들어내고, 그 덩어리가 인식이 되는 순간, 과거의 실재가 우리의 감각에 편입된다. 그렇게 감응이 일어나고, 마침내 우리 안에 살아남는다.